

최근, 담배를 피우는 여성과 청소년의 수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그 뉴스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 보았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문제인 것인가, 여성이나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문제란 말인가. 내 생각에는, 전자가 문제인 것 같다.(문제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 자체에 대해서 보다는, 여성이나 청소년의 흡연을 더 문제시 하고 있는 듯 하다. 담배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다. 여성에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남성에게는 나쁘지 않다고 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담배에 대해서 인류전체의 문제로서 이야기하고 싶다.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다. 또 미국의 대통령은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한 일도 있었다. 그 정도로, 담배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건강과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만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예를 조금 들어 보겠다. 우선, 건강의 문제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 등의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특히 임신중인 여성이 담배를 피우면, 태아에게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한다. 여기까지 듣고, 그래도 그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껍연이 간접흡연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른 문제는 쓰레기의 문제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담배꽂초나 담뱃재의 처리 등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거리나 건물의 쓰레기 중에서 담배에 대한 쓰레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배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담배를 금지하느냐 마느냐는 예전부터의 문제였다. 담배가 무익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이상의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담배를 법과 의무로써 금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